

# “국제대회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 자랑스럽다”

## 전북대생 4명, 모의UN회의 한국대표 참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에 재학중인 4명의 학생이 최근 중국 베이징 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국제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 지역 대학으로는 처음이다.

이번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 학생은 김은·김여민(이상 지미카터 국제학부), 박영은(정치외교학과), 이원국(국어국문학과) 등 4명.

모의유엔회의 및 국제 심포지움 중심으로 3국의 유엔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세계모의유엔연맹(WFMUN)이 후원하여 매년 개최된다. 올해 대외연 3개 국가에서 1백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이 중 한국 대학생 대표는 모두 9개 대학의 20명으로, 전북대는 연세대와 함께 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선발됐다.

전북대 학생들이 대거 선발된 배경에는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올해 한국유엔협회와 외교부 주관·후원으로 지난 7월 전국대학생모의유엔회의를 개최한 영향이 크다.

개최국이었던 중국은 북경대, 북경외대, 상해국제대 등 20개 대학 60여명, 일본은 도쿄대 및 와세다



김은씨



김여민씨



박영은씨



이원국씨

대 등 11개 대학에서 한국과 같은 20명이 참가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폴리테크닉대와 영국 옥스퍼드대 및 에딘버러대 등 영미권 대학 재학생들도 포함됐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 학생들은 '무장 갈등 예방과 난민 위기' 의제를 중심으로 유엔총회를 재현하는 영어 국제회의와 함께 '한중일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협력', '평화와 개발을 위한 문화 대화', '유엔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등의 주제로 글로벌 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방안을 토론했다.

이 대회를 주관하고 지도한 송기돈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선발 학생들은 영어위원회 의장, 영어

위원회 수장사, 유엔총회 의장, 유엔 사무차장 등의 역할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며 "전북대의 체계화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된 학생들이 전국규모 대회를 통해 국제대회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주관하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2016년에 처음 개최한 전라북도 중고생 모의유엔회의를 금년에는 전북대에서 후원하여 중고생에게까지 확장했다"며 "전북의 미래 글로벌 역량 기반이 전방위적으로 탄탄하게 구축되는데 지역여 접대하신 전북대가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 국립임실호국원,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 성황리 개최

국립임실호국원은 최근 호국원 청사 앞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제2회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를 열었다.



올해로 2회째 실시한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에 보답하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 민·관·군이 함께 어울려 국민통합을 이룬다는 취지로 마련돼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번 콘서트에는 약 1,500명의 지역민이 관람하였으며, 오경진 전라북도지사 배우자, 권윤정 국립대전현충원장, 이항미 임실군수 배우자를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박종덕 국립임실호국원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유익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호국원 음악회가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 이상주 익산경찰서장, 방범취약지역 합동 순찰 '눈길'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이 지난 7일 저녁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에 걸쳐 자율방범대와 함께 익산시 중앙·장안동 구도심의 방범취약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합동순찰은 지역 치안의 책임자로서 민경 협력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격려하고, 특히 최근 경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민 여론을 반영한 순찰 즉,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의 현장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행사는 익산자율방범대연합회장(경세광)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 중앙·모송·남중 3개 자율방범대 대장과 당일 순찰대원 등 25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함께 참여했고, 합동 순찰에 이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합동 순찰의 노선에는 주민들이 직접 집적적인 순찰을 요청한 탄력순찰 지점을 연계해 순찰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 안전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해 호응이 더욱 컸다.

이상주 서장은 "익산경찰이 현장과 시민 결로 가서 안전한 익산을 만듦으로써 사랑을 받자'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런 충심을 시민들께 직접 전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하고, "지역 안전을 위해 언제나 시민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실행할 것이고, 항상 시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치안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원광대병원 김정우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2018년판 등재

원광대학교병원에는 정형외과 김정우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판에 등재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김정우 교수는 영항력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AJSM(미국스포츠의학학술지)을 비롯, 유명 저널에 채택된 논문들에서 새로운 수술법과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견주관절의 관절경을 통한 치료에 대해 새로운 기술과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고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이번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김 교수는 원광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2005년부터 원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원광대병원 정형외과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김 교수는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홍보위원회 간사·학술위원, 대한정형외과 관절경학회 학술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일본 야마구치 공과대학장 이행, 학술교류 위해 군산대 방문

일본 야마구치 공과대학장 등 교직원들이 지난 8일 군산대학교 나이균 총장을 예방하고 군산대학교와 야마구치 대학 간의 학부 및 대학원생의 체계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군산대학교와 야마구치 대학 간에 맺은 학술교류 협정에 따른 것으로, 양교는 매년 격년으로 양교를 오가며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나이균 총장 방문 후 군산대학교 공과대학과 야마구치 공과대학은 학술교류 연구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발표자는 군산대학교 장세영 교수, 정대이 교수, 나인호 교수, 문병영 교수와 야마구치 공과대학의 타카시사이토 교수, 유지와카사 교수, 유타이다 교수, 히로야기야마다 교수 등이다.

군산대학교 공과대학과 야마구치 공과대학은 2005년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를 해왔고, 2010년 공학 분야에 국한했던 교류를 전 학과(부)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 금마농협, 농업박물관 찾는 행사 실시

금마농협이 최근 관내 조직장들과 함께 농업박물관을 찾는 행사를 실시했다. 금마농협 백낙진 조합장은 금마지역 사업 활성화 및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농협 중앙회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박물관을 찾아 박물관장의 특강 및 현장 견학등을 벌여, 농업인들의 현장 감각을 일깨워 농업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스스로 인식하는 계기를 갖게했다.

이러한 행사를 주관한 금마농협의 백낙진 조합장은 "농촌 지역의 현실인식을 통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함을 농업인이 깨닫게 하기 위해 금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고 120여명에 참석해 성대한 행사를 마무리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군산경찰서가 지난 8일 경찰서장실에서 경찰 주요 협력단체인 생활안전연합회(회장 이석규)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최원석 서장, 생활안전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군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생활안전연합회 임원진을 격려하고, 경찰과 협력단체간 공동체 치안 강화 방안, 국민이 원하는 장소 순찰하는 탄력순찰 활성화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석규 연합회장은 "생활안전연합회는 군산시민과 경찰의 가교 역할을 성실하게 해 왔으며, 앞으로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7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호동)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8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010-2333-4791	순천지사 256-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주지사 010-9845-9335	광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96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OLLABURO OFFICE OF EDUCATION

#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로

희복한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원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원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